이어령 교수 초청 저자 특강

박 정 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는 학문 연구나 저술 활동 등, 대학생들의 글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글쓰기나 독서에 임하는 태도와 방법, 저자의 학술 경험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올해는 이어령(李御寧) 교수를 모시고 〈창조적 상상력과 글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2014년 5월 20일 교수학습개발센터 61동 320호에서 열린 선생님의 강연 내용과 풍경을 정리해 본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로 계획된 강연 시간이 가까워오자 안내 접수대가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사전 접수를 한 신청자는 물론이고 접수를 하지 못했지만 강연을 꼭 듣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들이 접수를 하느라고 붐볐다. 그 가운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많이 보였다. 이어령 선생님의 오랜 팬이라며 즐거워하는 연세 지긋한 청중들 그리고 선생님의 최근 저서를 손에 쥐고 온 학생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자로부터 이어령 선생님의 화려한 이력이 소개되고 관중의 힘찬 박수 속에 선생님은 단상에 오르셨다. 〈창조적 상상력과 글쓰기〉라는 주제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칼' 의 군사력이 중요한 시대에서 '돈' 의 경제력이 힘을 발휘하던 시대를 거쳐 현대인들은 '말' 의 문화력이 중요해진 '스마트 파워 시대' 를 살고 있다. 말의 힘[言力]은 '140자 트위터 글쓰기의 시대' 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마디 말' 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다. '한 마디 말로 천 냥 빚을 갚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한 마디 말로 목숨을 구한 이야기, 역사를 바꾼 이야기, 선거에 당선된 이야기, 뱀을 용으로 만든 이야기 등등. 수많은 슬라이드가 지나가는 동안 '언력(言力)' 의 사례들은 동서양의 '문화력(文化力)' 으로 확대되어 간다. '말' 은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내재하는 문화적 차이는 물론 동양과 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로 확장된다.

말의 힘' 에 대한 강조는 '한국말' 에 대한 '발견' 으로 이어진다. '님' 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 이 되고, '보슬비와 부슬비' 혹은 '물과 불' 의 경우처럼 모음 하나 자음 하나의 차이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우리말. 강연자의 한국말이 갖는 매력에 대한 소개는 끝이 없다. '한국말에는 살(殺)이라는 말이 없다' , '단음절의 매력: 몸을 나타내는 귀, 눈, 입, 코' , '세 글자의 아름다움: 나그네, 아리랑, 새색시' , '한중일 가운데 한국말에만 있는 〈우리〉' , '주어가 없는 문장 구상이 가능한 한국어' 등등. 이러한 한국말의 매력은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발견' 된다. '기계와 불' 의 20세기를 지나, 21세기는 '생명과 물' 의 생명의 시대이다. 한국말은 '생명의 언어' 이다. '살다' , '사람' (사+람), '삶' 의 세 글자는 생명의 언어이다. '生' 을 뜻하는 '삶' 이라는 글자를 해자(解字)하면, '살다' 의 '살' , '사' , '람' 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삶' 이라는 한 글자 속에서도 '삶 속에 사람이 있다' 는 생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의 글자를 나누고 결합시키는 '관찰' 을 통해 한국말에 담긴 생명언어의 가능성을 '발견' 해내고 있는 것이다.

동서양의 '언력(言力)' 으로부터 시작된 강연은 '한국말의 새로운 발견' 으로 그리고 생명의 시대에 한국말의 생명언어로서의 매력에 대한 강조에 닿았다. 강연의 마지막에 김소월의 시를 노래로 만든 〈엄마야 누나야〉를 함께 들었다. 이어령 선생님은 이 시가 한국인의 토포필리아(Topophilia: 장소애)를 담고 있음을 설명한다. 시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닫히고 열린 공간이 공존하는 '강변' 은 한국인의 삶의 원형적 장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말' 에서 시작된 강연은 '삶' 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다.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구걸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었다. 사람들은 맹인을 스쳐지나갈 뿐이다. 문구를 '나는 봄[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에게 호주머니를 열었다. 같

은 문장에서 한 단어를 바꾸었을 뿐인데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앞'을 '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창조적 상상력'인 것이다.

'글쓰기'는 '창조적 상상력'의 다른 말이다. 누구나 창조적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이번 강연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말[言]'에 대한 탐구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말'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발견, 즉 '님'과 '남'을 구별하는 하나의 '점'을 발견하는 일은 '앞'이라는 단어를 '봄[春]'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